



Quant

2026년 7월 6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AI 위주 글로벌 실적 상향 지속, Non-AI는 에너지, 소재 위주로 실적 하향. AI 위주의 실적 쏠림현상이 갈수록 고착화, IT 및 산업재가 발달한 한국 및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위주 실적 상향. 반도체 및 기술하드웨어가 꾸준히 실적 상향 이어지는 가운데, 우주국방항공과 산업재, 의류(AI 기반 재고 관리 영향 등) 실적 상향도 관찰

그 외 지난주 핵심 실적 상향 종목은 테슬라, Q2 2026 인도량 480,126대로 월가 컨센서스 406,024대를 18% 상회. 생산은 451,758대. YoY +25%, QoQ +34%

6월 NFP +5.7만, "Bad news is good news". 컨센서스 11만명의 절반 수준. 4월 14.8만(상향수정)-5월 12.9만(하향수정)으로 4~5월 합산 -7.4만 추가 하향

레저·숙박 -6.1만(월드컵 시즌 일시적 요인). 실업률 4.2%(노동참여율 하락 반영). 시간당 임금 YoY +3.5%(전월 +3.4%)

연준 7월 금리 인상 확률 29%→18%로 금락 → 국채 2년물 -3.5bp → 다우 +1.14% 사상 최고, 반면 NDX는 AI 비용 우려로 -1.61%

AI "비용" vs "수익화" 논쟁 본격화. OpenAI 미국 정부 5% 지분 협상 보도, 메타의 "여유 컴퓨트 외부 판매 검토" 발언이 같은 날 겹치며 "AI CAPEX가 과잉 아닌가" 시장 의구심 자극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반도체(인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 — 인텔은 애플 칩 미국 본토 생산 협력 발표 및 데이터센터 회복 반영

기술하드웨어(시게이트, 델, 삼성전자, 혼하이) — 델 AI 서버 매출 Q1 YoY +757%, 시게이트 네어라인 2027년 전량 사전계약으로 3달 기준 EPS 상향폭이 반도체 장비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파름

우주국방(보잉, 하우멧, 롤스로이스, 사프란) — 보잉의 1달 강한 실적 상향은 PAC-3 MSE 7년 대형계약 + 중국에 200기 합의로 백로그가 \$6,820억에 달하는 것을 반영. NATO 5% GDP 목표 공식화, 미 국방부 FY2027 예산 +44% 증가가 업종 전반을 견인

산업복합기업(GE버노바, 지멘스에너지) — GE버노바, AI 데이터센터 전력 병목과 전력망 현대화가 구조적 드라이버

의류력서리(패스트리테일링/유티클로, 인디텍스/자라, 리치몬트) — 유티클로가 그룹 내 가장 강하게 상향. 패스트리테일링 3달 +10.37%는 아시아 소비 회복 및 AI 기반 재고 관리 효율화가 배경. 명품주(LVMH-에르메스)는 1년 기준 정체 혹은 소폭 하향으로 고급 소비 둔화가 여전히 부담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하향 업종은

에너지(토탈에너지, 세브론, 코노코필립스, 쉘) — 유가 하락 영향

금속/광물(BHP, 애그니코이글, 뉴몬트, 글렌코어) — 금광주가 가장 명확한 음수. 금값이 \$4,500+ 고점에서 \$4,187로 하락하면서 금광 EPS 추정치 직격. BHP는 철광석 수요 우려. 단, 예외로 프리포트맥모란은 구리 가격은 AI 인프라 수요(데이터센터 1기당 구리 27~33톤)로 여전히 강세. 금속·광업 내에서 금(하향) vs. 구리(상향) 분화가 이 업종 해석에서 핵심

상호미디어(메타, 컴캐스트, NTT, 도이치텔레콤, 소프트뱅크) — 메타 1주 -1.16%는 CAPEX \$125~145억 상향 + AI ROI 불확실성이 단기 트리밍을 야기. 컴캐스트·NTT는 전 기간 음수로 통신 케이블 업종의 구조적 하향 확인. 소프트뱅크 3달 -31.77%는 아이폰·반도체 투자손익 변동성 반영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테슬라,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MD, ASML, 인텔, AMAT, 로슈, 머크, 팔란티어, 아스트라제네카, 델, 지멘스, 알리바바, 마벨테크놀로지, 슈나이더전기, 시게이트, 보잉, 지멘스에너지, 길리어드사이언스, 인피니온, 브룩필드, 미쓰비시, 루빈후드, BP, 데이터독, 프리포트맥모란, KKR, 발레로 에너지, 혼다

하향 주요 종목은 소프트뱅크, 윌타워, EOG리소스, 애그니코이글마인스, 메타, 토탈에너지, BMW, 클라우드스트라이크, 프로수스, 에퀴니어, 나이키, 허니웰, 스트래티지, 세브론, 노보노디스크, 쉘, BHP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2Q26F OP는 227조원 (1W +0.8%, 1M +1.7%, QoQ +56.8%). **2026E OP**는 957조원 (1W +2.1%, 1M +4.7%, YoY +218%). **2Q26F OP 상향 업종**은 상사, 2차전지, 정유, 해운, 화학, 손해보험, 반도체, 가전. **하향 업종**은 섬유·의복, 기술·하드웨어, 철강, 상호미디어, 방송엔터, 제약·바이오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2Q26F OP)는 SK하이닉스, SK스퀘어, KB금융, SK, LG전자, 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현대로템 상향.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 우리금융지주, 카카오, 한 국항공우주, 현대글로벌비스 하향

2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SK, HMM, 피에스케이, GS, 포스코퓨처엠, 미래에셋증권, 신세계,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 크래프톤, LG화학, LS, LG전자, SK스퀘어,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고려아연, SK하이닉스, 대덕전자, KB금융, 현대로템, HD현대, HD건설기계, LS ELECTRIC, 삼성에스디에스, NC, 삼성전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BNK금융지주, 삼성증권, 한화오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에코프로비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양식품, KT, LG, 기업은행, S-Oil, 한화, 대한전선, 한화솔루션, 현대건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삼성카드, 기아, HD현대중공업, POSCO홀딩스, LG씨엔에스, DB손해보험, 에이피알, 삼성생명, HD한국조선해양, 한미반도체, 메리츠금융지주, 알테오젠

외국인은 중형주 제외하고 전 스타일 매도, 특히 대형주와 성장주에 매도 집중.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20조원, 코스닥 -1,9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전자재, 자동차, 유통, 기술하드웨어, 상호미디어. **순매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상사, 전기장비, 방산

연기금은 지수 하락으로 리밸런싱 수요 X, 오히려 중소형주 개별 종목에 매수 관찰.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1,900억원, 코스닥 +28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건강관리장비, 내구소비재, 항공, 상사, 가구. **순매도 상위 업종**은 화학, 전자재, 통신, 기술하드웨어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7.6일(월)

- / -

7일(화) ★★★ 금주 최대 관심 (국내)

- /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장 전 오전 8~9시 예정), 컨센서스 매출 172조원, 영업이익 85~90조원(YoY +1,700%), 일부 증권사 90조원 이상 전망. DS 성과급 총당금 10~20조원 반영으로 발표 수치에서 이 금액을 더해야 "실질 실적"에 가까움을 유의
 LG전자 2분기 잠정실적 (장 전 예정), 컨센서스 매출 22.5조원, 영업이익 1.1조원(YoY +60%+). 관세 환급 일회성 이익 + LG이노텍 서프라이즈 가능성

8일(수) ★★

FOMC 6월 의사록 발표 (한국 시간 7/9 오전 3:00), 워시 취임 후 첫 의사록. 점도표 의견 분포(9/18명 인상 시그널) 배경 논의, 워시 본인 점도표 미제출 이유 등 확인. "Higher for longer" 강도 재점검 핵심 / -

9일(목)

- / 펩시코(PEP) 장 전, Q2 2026 실적. 소비자 지출 현황 선행 확인

10일(금)

- / 델타항공(DAL) 장 전, 유가 하락 수혜 직접 확인. 하계 여행 수요 강도 점검

다음 주 이후 주요 이벤트 (선행 모니터링)

7.14 (화) ★★★ 빅뱅크 어닝 시즌 개막

골드만삭스(GS) 장 전, 씨티그룹(C)·웰스파고(WFC) 장 전, JP모건(JPM) 7/15(수) 장 전. Q2 투자은행·트레이딩 실적 + AI 관련 사모대출 노출 현황 업데이트.

7.22 (수) 알파벳 / 7.29 (수) 마이크로소프트·메타 / 7.30 (목) 애플·아마존

빅테크 어닝 시즌 핵심 구간. AI CAPEX vs 수익화 논쟁의 실질적 분기점

7.24 (금) 삼성전자 2분기 확정실적 + 컨퍼런스콜 ← 잠정은 7/7이지만 확정은 7/24

Quant Comment

S&P 500 Q2 2026은 2020년 이후 최고 분기 수익률로 마감, 다만 분기 말에 등장한 두 가지 이슈에 주목. 1) 목요일 메타 CAPEX 투자 완화 보도, 애플 중국 반도체 업체 컨택 등

으로 나스닥 -1.61% vs. 다우 +1.14%의 극단적 분열, 다만 글로벌 이익은 이미 AI 산업 (특히 반도체)으로 쏠림 고착화, 반도체 없는 글로벌 이익은 '침체' 수준으로 일종의 '대마 불사'의 형태, 'AI or Die' 측면, 2) 6월 NFP +5.7만은 연준 인상 우려를 완화했지만 동시에 미국 실물 경기의 구조적 둔화 가능성(금리 하락 방향성)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7/7 삼성전자 잠정실적, 85~90조원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 여부와 성과급 총당금 규모가 코스피 방향성의 첫 신호, 3분기 100조원 돌파 시나리오의 신뢰도를 이번 숫자로 가늠 가능

글로벌 관점에서는 7/8 FOMC 의사록으로 "9명의 인상 지지자"의 구체적 논거를 확인하는 것이 금주 채권·성장주 방향성의 핵심 변수

상반기 성과 확정 이후 본격적인 개별종목 알파 장세 도래 예상, AI 기반 실적모멘텀을 보유한 전섹터 뿐 아니라 개별종목에도 관심 필요, 2분기 실적 발표는 해당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 본문 중 2분기 실적 상향 종목 참고